

제주대신문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자 하는 그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대에게
제주대신문은 길이고 희망이고 싶습니다.

제주대신문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제843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 발행인 허향진 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강보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690-756) | 전화: 754-2277~9 (FAX 756-2204) | 인쇄: 제주일보사

기초교육원 설립 추진 공방 가열

“체계적 관리로 질적 향상” “교양교육 강화에 걸림돌” 팽팽

반대 학과 등 시각차 커 의견조정 필요

기초·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초교육원 설립을 두고 본부와 학과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은 지난 2006년도에도 추진됐으나 교수들의 반발과 진통 끝에 평의회 심의에서 부결됐었던 적이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기초교육원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기초교육을 강화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교육의 튼튼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전문적·효율적·통합적·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구다.

이를 통해 현재 학과와 단과대 중심의 교양교육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을 대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현재 검토중인 기초교육원의 조

직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기초교육원장)를 비탕으로 운영 계획이다.

하부조직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양교육부와 기존에 교수법과 학습법에 대한 연구 및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한 교수학습지원부, 행정실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런 기초교육원이 설립되면 편성·운영·평가·피드백 시스템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교양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 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렇듯 기초교육원 설치는 제주대의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는 TF팀을 구성해 기초교육원 설립계획(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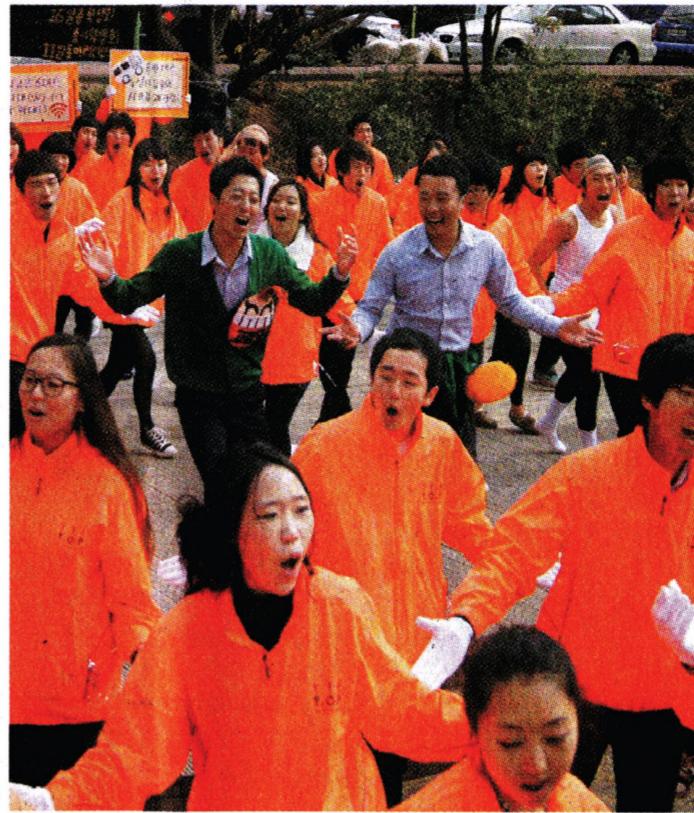
이에 따른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기초교육원 설립 목표를 내년으로 잡고 있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양과목과 관련이 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부 측은 기초·교양교육의 문제점을 학교 전체의 큰 틀 속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입장이지만 학과 측은 교양교육 운영에서 관련 학과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학과 측은 기초교육원이 설립되면 교양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양교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기구인 기초교육원은 경북대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국립대학이 설치·운영 중이다.

강보배 기자



지난 8일 한라에서 열린 총학생회 합동선거유세 사진. △왼쪽: 'T.O.P' 정-오경범(경제 4) 부-고경모(정치외교 2) △오른쪽: '똑똑똑' 정-현용탁(원예생명과학 4) 부-박병준(경영 4)

총학·총여학생회 열띤 선거전

지난 8일 합동선거유세… 총학생회 10일 2차 정책설명회

(총학생회)

T.O.P 정



오경범(경제 4)

똑똑똑 정



현용탁(원예 4)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권종 정치외교 4, 이하 중선위)는 지난달 22일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학생회 후보로 △ 'T.O.P' 정-오경범(경제 4) 부-고경모(정치외교 2) △ '똑똑똑' 정-현용탁(원예생명과학 4) 부-박병준(경영 4), 총여학생회에 △ '여보세요' 정-양해경(가정관리 3) 부-박근양(회계 3) △ '우먼센스' 정-고민영(무역 3) 부-최정윤(사회 3)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각각 오는 10일과 11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제2차 정책설명회를 가진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한라에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합동선거

유세가 열렸다.

합동선거유세는 총여학생회 후보자 '우먼센스'를 시작으로 '여보세요' '똑똑똑' 'T.O.P' 순서로 진행됐다. 선거는 16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과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50분)으로 나눠 각 단과대학에서 이뤄졌다.

한편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제1차 정책설명회가 각각 지난 2일과 4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총학생회 정책설명회에서는 복지위원회 활성화, 총학생회 정책 홍보강화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총여학생회 정책설명회에서는 총여학생회 필요성부터 도서관 휴게실, 회장실 유리판 설치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 정책설명회 3면
강보배 기자

인문대학 인력양성과정

중간보고회 오는 12일

인문대학에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간 보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상공회의소 종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양성과정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 1부에서는 '인문계열 전공자의 취업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제주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제주대 교수, 학생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석준(사회과학) 인문대학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지역과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학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세요"라고 밝혔다.

고용희 기자

UN 세계환경대학 설립 시동 걸어

모리스 스트롱·로버트 마틴·곽영훈 총재 등 석좌교수 임명



모리스 스트롱 로버트 마틴 리스



곽영훈

미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2년간 세계환경수도를 견인할 UN 세계환경대학의 제주 설립과 국제환경종합센터를 활용한 국제기구의 유치와 설립, 그리고 세계환경지도자회의 개최, 세계환경과 산연구소를 국제적인 연구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좌교수로 임용된 모리스 스트롱씨는 전 UN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UN 평화학교 이사장, UNEP과 IUCN을 설립한 세계적인 환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을 명시다. 1972년 스黠흘름 환경회의 주도해 지속가능한개발에 큰 기여를 했고, 올해 미국 루즈벨트재단으로부터 루즈벨트 4대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로버트 마틴 리스씨는 스위스 로만필립 사무총장으로 세계기후변화 연구와 유럽의회 지도자 회의 등의 방향 정립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스티리카 UN평화대학원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곽영훈 박사는 세계시민기구 총재이자 사람과 환경 그룹 대표로 모리스 스트롱 전 UN사무처장에게 UN환경대학 제주 설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한편 석좌교수들의 임기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까지 2년간이다.

고용희 기자

2011학년도에 새롭게 제주대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를 결정하는 선거가 오는 16일 치러진

2011학년도에 새롭게 제주대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를 결정하는 선거가 오는 16일 치러진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각각 오는 10일과 11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제2차 정책설명회를 가진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한라에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합동선거

BK21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硕·박사) 신입생 모집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Brain Korea 21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및 신진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고등 인력양성사업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사업
- 지역우수대학원 선정 학과!
- 국내 유일 관광부문 BK21 연구인력 양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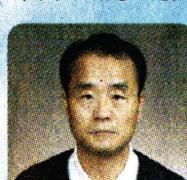
김용익
2009년 2월
박사학위 취득
(대한해저관광 회장)



김경진
2010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고계성
2006년 8월
박사학위 취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



박인호
(박사과정 재학)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영남
(박사과정 재학)
전 김녕미로공원
대표



자일 초드리
(박사과정 재학)
숙대 로꼬르동불루
Hospitality MBA

■ 대학원생 혜택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 월 50만원 이상, 박사 월 90만원 이상 지급
- 글로벌 인턴십, 해외 장,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전액 지원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시 차등성과급 지원

■ 주요활동

- 국제학술대회 참석
- 해외학자 초청강연
- 장단기 해외연수
-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경영학과 (硕·박사)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2010. 11. 23 (화) ~ 11. 26 (금)
- 접수: <http://www.uwayapply.com> (1588-8988)
- 대학원 문의: <http://gs.jejunu.ac.kr/> (754-2045)

BK21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www.bktourism.org (754-2066)

기초교육원 설립 추진에 일부 학과 반발

학과 고유영역 침해에다 질적 향상 어려워

기초교육원을 두고 논란이 계
속되는 가운데 기초교육원의 설
립 추진 과정과 어떤 점이 쟁점
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기초교육원 설립 추진 과정

기초교육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였다. 당시 총장이었던 고충석(행정학과) 교수는 학생취업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성공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양과정을 강화하는 현 기초교육원 견인 기초교육개발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단과대학별 특성이 없어지고 기초교육이 하향화될 우려에 대한 논란과 반발로 평의회에서 부결됐고, 결국 본부에서는 기초교육개발원 대신 좀 더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관한 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2007년 9월 설립하게 됐다.

그러나 허향진 총장이 취임한 후 기존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합한 기초교육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초교육원을 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기본 설립계획(안)을 세우고 학

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물은 결과, 교양과목과 관련 깊은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본부에서는 학과 뜻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과 측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교육원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듯 기초교육원 설립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양교육 운영에서 관련 학과가 배제될 우려가 크고, 교양교육의 질 저하와 기초학문분야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학과 측의 주장이다.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 운영, 학사관리는 전적으로 학과의 고유 교육권한이며 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또 기초교육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핵심역량 교과목의 내용이 현재 운영 중인 교양과목과 중복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렇듯 교과목이 겹치게 될 경우 학과 교수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어

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는 어려운 전공한 교수가 각각 1명뿐인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교육원이 설립될 경우 기초교육원에 대한 교원 배정이 우선 이루어져 학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핵심역량 교과목의 전문 강사에 대해 대학 내 전임교원을 우선해 뽑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집도 학과 측에서는 형식내기지 지나지 않는 입장이다.

김동운(국어국문) 교수는 "핵심역량 교과목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과정은 공통교양인 의사소통과 논리적 사고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기존 공통교양을 중복 수강함은 물론 서로 겹쳐지는 부문에 대해서 본부와 학과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학과 내 과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심역량 교과목의 전문 강사로 지원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렇듯 전임교원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강사들을 초빙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과 측은 기초교육원이 교양

강보배 기자

물산업 육성 과제

12일 벤처마루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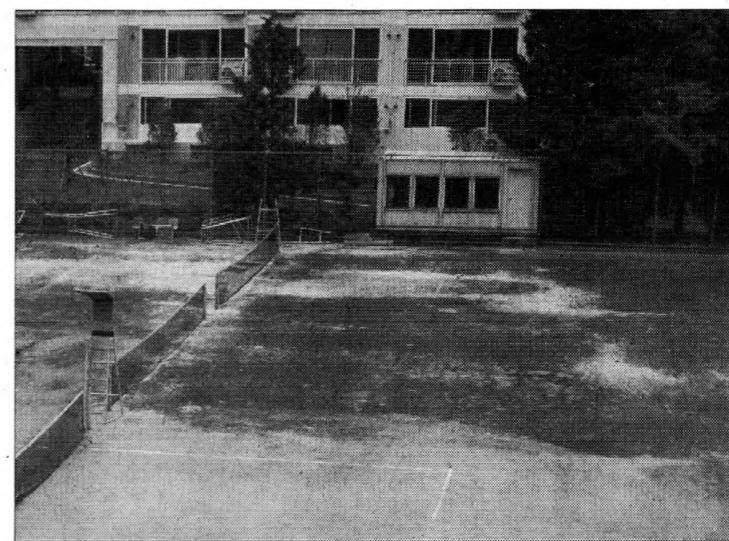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 세미나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언론홍보학과(학과장 김경호)와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대표 고영철)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 물산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과 지역언론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지현 언론홍보학과 강사가 '제주 물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이서현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간사가 '물산업 관련 보도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한다.

또 삼다수와 야생차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상품 관련 소재 14개도 유력 소재로 검토되고 있다.

제1테니스코트 관리 소홀로 방치

관리책임 동아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1테니스 코트 관리소홀로 라인이 지워지고, 코트장이 웅포파여 있어 경기 가능 불가능한 상황이다.

"땅이 웅포파여 있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조재석(체육학부 1)씨가 제1테니스 코트를 두고 한 말이다.

현재 대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제1테니스 코트의 관리소홀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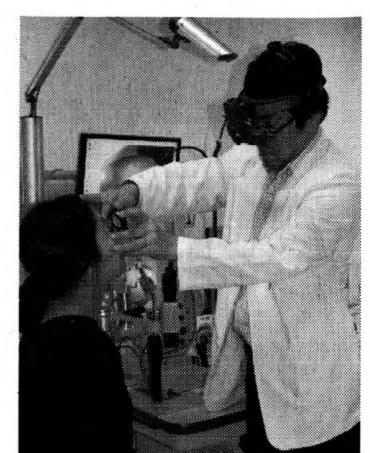
테니스 코트는 2개로 이루어져 있

어 양쪽에 4팀씩 총 8팀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제1테니스 코트의 관리 미흡과 노후화로 인해 제2테니스 코트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라인 선이 지워져 각 코트를 구분할 수 없으며 땅조차 고르지 않아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긴지

정승우 기자

제주대병원 눈의 날 맞아 건강강좌 실시

당뇨병 눈질환의 예방과 관리… 무료 안전, 안압 검사도 진행



안전, 안압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시력을 보호할 것 등의 예방 수칙
설명했다.

특히 이번 눈의 날 행사에서는 행사를 찾은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무료 안전, 안압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제40회 눈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4시 병원 2층 대강당에서 도민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당뇨병이세요? 안과검사는 하셨나요?'라는 주제로 당뇨병 눈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초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대병원 안과 이대규 교수와 강사로 나서 당뇨병 눈질환의 특징과 예방법 및 올바른 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대규(외과) 교수는 "당뇨병 눈질환은 당뇨병환자 가운데 20% 가 넘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 막비사시 등 유형도 다양하다"며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세계 3대 질병으로 일컬어질 만큼 위험도가 높지만 정작 당뇨병 환자들은 안과검진에 소홀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실명 위기에 와서야 안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대한안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은 3배, 백내장은 5배, 막비사시는 6배가량 높으며,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다 발병했을 경우 실명률은 정상인의 약25배에 달한다.

이외에도 당뇨병 눈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병으로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3년 내에 안과에서 조기 검진을 받을 것 △당뇨병 눈 질환이 없는 경우 1년에 한 번, 있는 경우 2~4개월에 한 번씩 당뇨병과 함께 안과검진을 받을 것 △혈당과 혈압조절에 힘쓸 것 △자외선 차단과 금연을 생활화 할 것 △당뇨병 환자는 백내장 발생위험이 5배이므로 창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로

증강체험형 생산기반 구축사업 본격화

용암동굴 형성과정과 탐라 개국신화 등 17개 소재

한라산을 베개 삼아 관찰석에 다리를 걸쳐 잡을 자고, 성신일출봉을 빨래바구니로 쓰던 설문대 할망.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던 백마가 장수의 손에 잡혀 굳어 버린 제주시 옹두암.

제주의 신화와 설화가 IT 기술을 이용, 현실세계와 3차원의 가상현실을 접목해 보여주는 이른바 '증강체험'을 통한 생생력을 얻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제주대는 지난 9월 24일 지식경제부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제조품과

협력사업으로 37억원을 들어 제주 증강체험형 개발·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소재를 확정,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컴퓨터(HMD, Head Mount Device)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증강체험은 관광상품은 물론 물관련 상품, 농수축산물 등이 개발 소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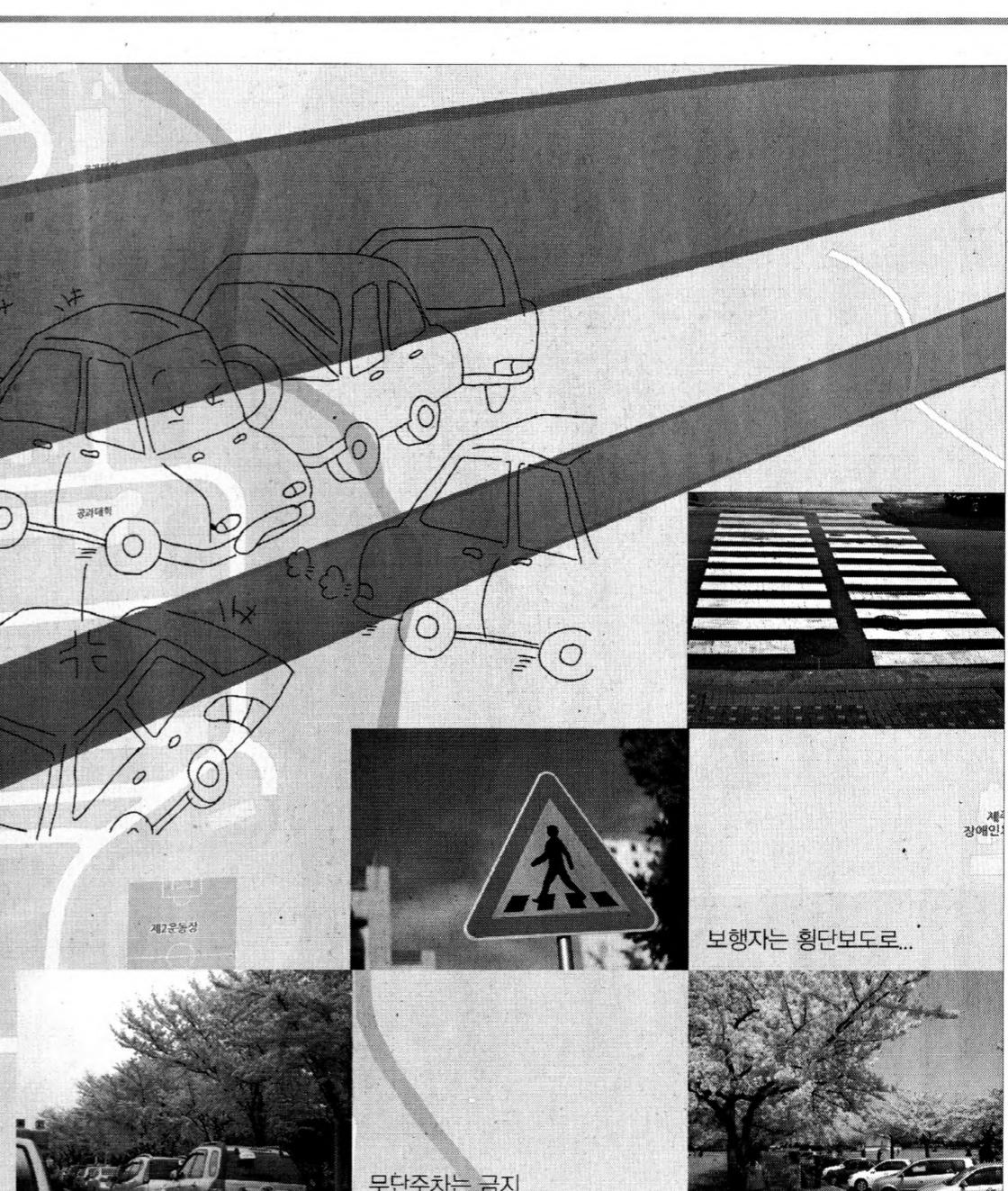
제주대는 지난 9월 24일 지식경제부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제조품과

제주대 의식개선 프로젝트 – 3. 학내교통의식 가지기

학내교통의식 가지기

밝은 제주대를 위한 캠페인

당신의 무심코 세운 자동차가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구급차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금 일찍 가겠다는 조급함이 당신과 당신의 친구에 죽음을 앞당깁니다. 교통 안전 의식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학생권리 찾기' '복지위 발전 방안' 공방전 후끈

복지해결에 한목소리… 1차 정책설명회서

2011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T.O.P', '똑똑똑'의 정책설명회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우먼센스', '여보세요'의 정책설명회가 각각 지난 2일과 4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각 정책설명회는 출마한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설명을 시작으로 강권종(총대의원의장) 선거관리위원장과 패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총학생회 설명회 내용 - 학생들의 권리 to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똑똑똑 :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복지문제에 있어서 대학본부나 교수회, 총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 하겠다. 같은 대학의 3주체인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T.O.P : 총장과 학생들의 인식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 직접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 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똑똑똑 :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됐지만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릴지도 복지위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칙도 만들어야 하고, 독립적인 권리도 확보해 총학생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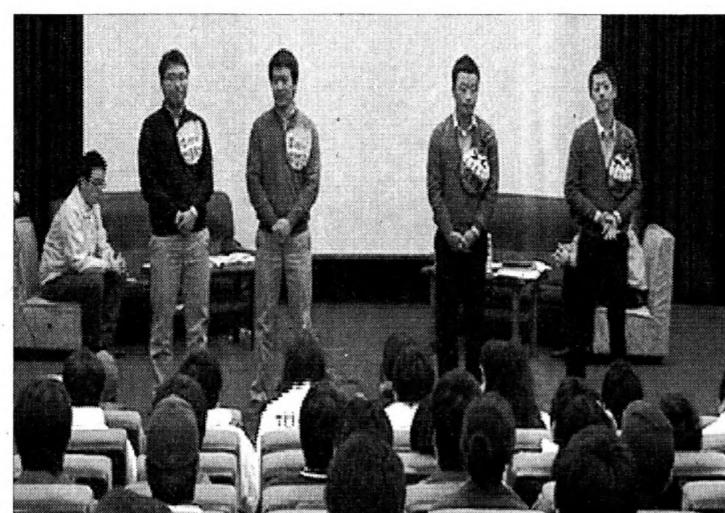
T.O.P : 복지위원회가 총학생회의 산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총 복지의 경우도 복지위원회가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중앙운영위를 거쳐 논의를 통해 독립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총학생회 정책을 홍보하기 방안이나 여학생들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다음은 총여학생회 설명회 내용 -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

여보세요 : 총여학생회가 모든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복지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들을 찾아내 해결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

우먼센스 : 총여학생회는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



지난 2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정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당선이 된다면 어떤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은가?

여보세요 : 오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들의 불편이나 복지문제에 있어서 여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한편 제2차 정책설명회는 총학생회가 10일 오후 2시, 총여학생회가 11일 오전 12시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이외에도 여학우 열람실과 휴게실, 화장실 거울 설치, 변기향균 물리슈 비치 등 공약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한편 제2차 정책설명회는 총학생회가 10일 오후 2시, 총여학생회가 11일 오전 12시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강보배 기자

요르단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현재와 미래

후나이티 무타대 총장, 지난 2일 공과대학·2호관에서 특강



지난 2일 공과대학 2호관 2층 회의실에서 후나이티 총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은 지난 2일 공과대학 2호관 2층 회의실에서 요르단 무타대학교 압델라힘 후나이티(Abdelrahim A. Hunaiti)

총장은 지난 1975년 암만 요르단 대학교 생물학 학사, 1983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생화학 박사 등을 마친 뒤, 지난해부터 무타대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생화학 실험에 관한 실험설명서', '예멘 교육부를 위한 일반 과학', '아랍 세계에 대한 과학과 기술' 등의 저서를 저술했다.

현재 과학·의학과 정보 기술 승인 위원회 의장, 고등 교육위원회 위원, 고등 교육위원회를 위한 행정금융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후나이티 총장은 특강에 앞서 허항진 총장과 면담을 갖고 두대학 간 학술교류 협력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요르단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철학독후감대회

11개교 89편 응모

철학과(학과장 김현돈)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철학독후감대회' 시상식이 지난 3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철학독후감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은 후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9월 10일까지 공모한 총 11개 중·고등학교에서 89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다음은 수상내역이다.

△ 우수상 부성훈(제주일고 1), 신유지(이리중 3)

△ 장려상 박신현(서귀여고 1), 강지이(신성여중 3), 김효정(신성여중 3), 박남주(신성여중 3), 조운영(이리중 3), 김다운(제주여중 2), 정경윤(제주여중 3)

△ 지도교사상 이성숙(이리중 교사), 김희철(신성여중 교사)

오한숙희 소장 아라뮤즈홀서 2시 강연

문화광장은 10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너만의 북극성을 따라라'라는 주제로 오한숙희 한국여성

민우희 가족과학상담소 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흔들리는 청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3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 소장은 가족과학상담소장과 더불어 현재 한국여성민우희 김포지구 대표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응모분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 접수장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 발표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佳作(30만원)
 -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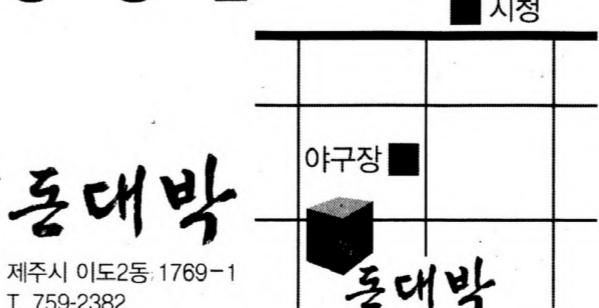
- 응모자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응모분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판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에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상: 학부생/대학원생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당선작 각 1편: 총상장 및 상금 50만원,佳作(각 2편: 총상장 및 30만원)
-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접수마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2011년 신년호



파전, 계란찜, 갈비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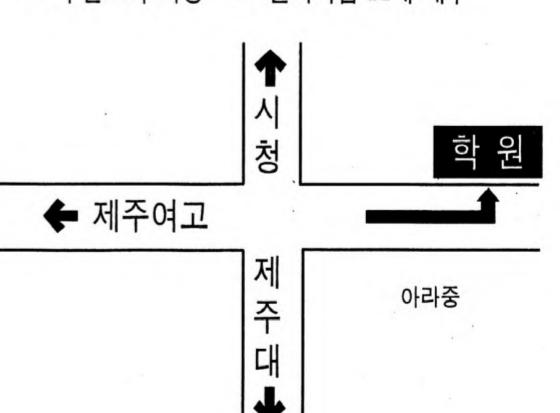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운전면허 시험장

한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총여학생회 여보세요〉 정- 양혜경(가정관리 3), 부- 박근양(회계 3)

학생의견 통해 정책개발... 여학우들의 대변자로

중앙도서관 휴게실 마련, 정책참여제 확대 운영

-출마 동기

“출마 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여보세요라는 슬로건은 ‘여자를 보다’라는 의미로 여학생 한분 한분을 다 둘러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총여학생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 여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앞장서 대변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역할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생활복지와 관련해 총여학생회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관찰하고 제워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총여학생회라고 해서 남학생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과 남학생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와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총여학생회에 대해 아쉬운 점

“현 총여학생회는 좋은 공약을 많이 마련했지만 학생들의 이용이 부족해 아쉽다. 좋은 공약들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학생 휴게실도 전부 보수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홍보가 부족해 활성화가 잘 되지 못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총여학생회 홍보에 민전을 기하겠다. 이를 위해서 매달 8일은 여학우의 날로 정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일일찻집과 같은 이벤트를 비롯해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주소는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여보세요’ 정후보자 양혜경(가정관리 3, 오른쪽)씨와 부후보자 박근양(회계 3, 왼쪽)씨

총여학생회의 이름을 치면 나오는 식으로

꽤 있었다. 이를 총여. co.kr 으로 바꿔서 다음 총여학생회도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게끔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홈페이지에는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신문과 게시판과 학교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학교소식란을 만들어 운영하겠다. 이런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주요 공약에 대해

먼저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명함식 버스 시간표다. 순환버스 시간표가 정류장마다 적혀 있는 하지만 버스를 아깝게 놓치거나 오래 기다린다. 그 시간을 조급이나마 아껴드려기 위해 쉽게 들고 다닐수 있는 명함식 시간표를 만들겠다.

중앙 도서관에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겠다. 열람실 밖으로 휴게실 나가는 부분에 빙 참고가 있다.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이다. 이 공간을 이용해서 여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공간을 휴게실로 만드는 공약을 만들었다. 지금 이 공약은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또 기존에 이뤄지던 정책 참여제를 확대하겠다. 전 총여학생회에 정책 참여제는 여학부부장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공모전 스타일로 오천 여학생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선을 학생회 내에서나 단대 여학생들이 같이 심사를 하고 결선에 오른 것은 오천 여학생들 전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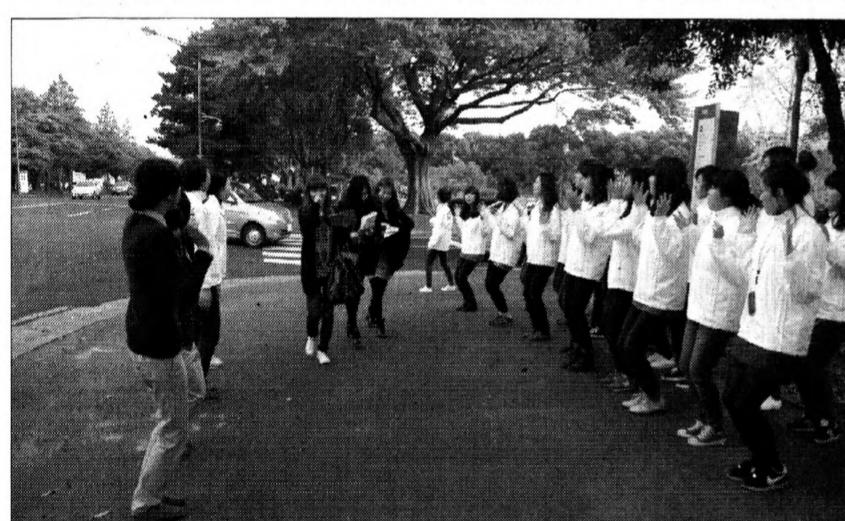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준비했다. 먼저 회장실에 변기 향균 물티슈를 비치하겠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변기다보니 이용하는데 짚찝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향균 물티슈를 비치하게

되면 이런 짚찝함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도 향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건강증진센터와 사설 헬스클럽과 연계해 개인 트레이너를 운영하겠다. 건강증진센터 안에 체지방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자신의 체지방이나 몸·상태를 체크해 그것을 의사선생님께 드리고 의사선생님이 트레이너가 필요한 학생들 5명을 뽑으면 다른 연계업체에 가서 개인트레이너식의 1:1 맞춤 지도를 받으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오천 여학생을 하나하나의 소리에 귀담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또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뛸 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주셨으면 한다.”

김승지 기자



‘여보세요’ 선거운동본부가 등교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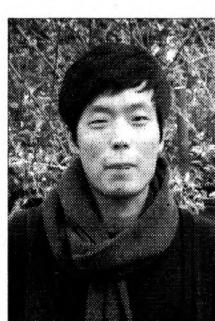
새 총학생회에 바란다

“쾌적한 도서관 만들었으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고쳤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해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들을 잘 이뤄줬으면 좋겠다. 공약을 보고 총학생회를 뽑았는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학생들이 믿고 뽑은 만큼 공약들을 잘 지켜주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봉사 위한 자리임을 명심하길”



총여학생회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의 대표가 아닌 대변인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 했으면 좋겠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열정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 전체 참여 행사 기획을”



제주대 학생들이 다 같이 어울리고 참여하는 행사는 대동제 밖에 없는 것 같다. 단과대학이나 과별로 행사가 있긴 하지만 제주대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않는다. 그런 점에 학생들이 전부 모여 즐길 수 있는 큰 행사가 대동제 말고 또 마련됐으면 좋겠다.

〈총여학생회 우먼센스〉 정- 고민영(무역 3), 부- 최정윤(사회 3)

“여학우들에 더 가까이... 공약사항 더 넉넉히”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 매달 26일 우먼스데이 운영

-출마 동기

“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학내에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이러한 불편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런 불편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곳이 총여학생회라고 본다. 그렇지만 총여학생회에 여학생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성을 뜻하는 기호(♀)를 닦고, 돋보기 모양을 닦아 있는 ‘우’자를 이용해 우먼센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했다. 슬로건처럼 여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역할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을 위한 차지기구는 맞지만 남학생들을 배제한 기구도 아니다.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남녀의 차별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애상담이나 성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봉사활동에도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현 총여학생회에 대한 아쉬운 점

“총여학생회라는 곳이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곳 같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총여학생회를 방문하려면 부담을 가질 때가 많았다. 여학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또 총여학생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학생들이 총여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우먼센스’ 정후보자 고민영(무역 3, 왼쪽)씨와 부후보자 최정윤(사회 3, 오른쪽)씨

의 복지에만 집중하는 차지기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여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주요 공약에 대해

“우선 공약들을 내세울 때 100% 실현 가능한 공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약 선정에 있어서 절실히 신중했다.”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공약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대부분의 학생차지기구들이 봉사활동을 가지만 횟수도 적고, 봉사활동도 농촌봉사에 한정 됐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우리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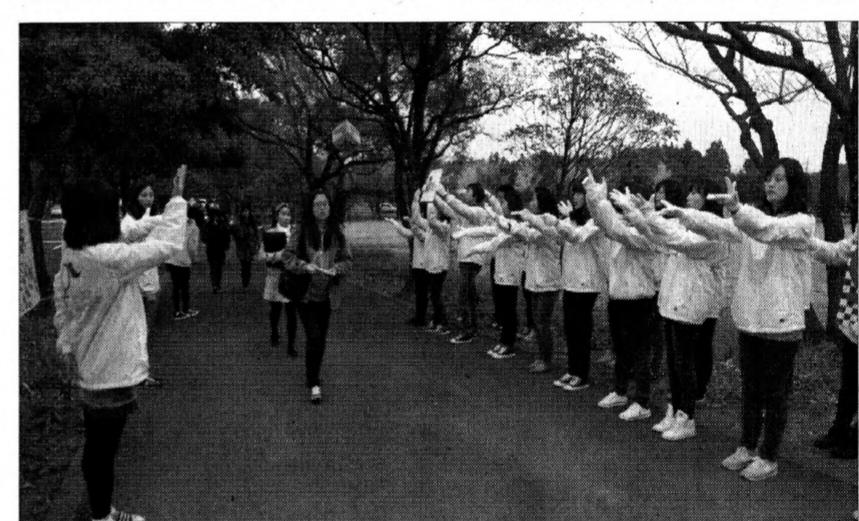
먼저 학생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 기존에 여학우부장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여학우부장들을 위해 〈우먼라이센스〉라는 여학우부장증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부족한 부분까지 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밤에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와 보수, 순찰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로등 확대와 보수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밤낮을 마련했다. 또 남문지구대를 통해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가 순찰을 돌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여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불편한 점이 있고 비판하는 점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보면 좋겠다. 여학생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해 여학생들의 대표자가 아닌 대변자로 항상 곁에 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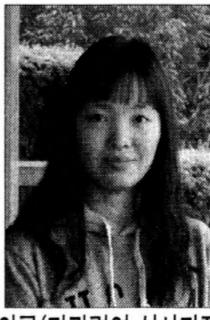
박현 기자



‘우먼센스’ 선거운동본부가 등교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새 총학생회에 바란다

“외국인 여학우에게 관심을”



제주대에 많은 외국인 여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다. 그러나 타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생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다. 그런 점을 총여학생회에서 인식하고 여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의견 귀담아 열린 학생회로”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친절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여학생들이 총여학생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친절한 총여학생회가 아닌 임기 기간 내내 여학생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총여학생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책추진에서 역차별 조심해야”



총여학생회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남녀역차별에 대한 의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당선되는 총여학생회는 남학생들가지 배려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됐으면 좋겠다.”

“학우들과 소통에 최선을”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여학생과의 소통이다. 올해 세이호 총여학생회에서 실시한 공약인 정책참여제도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참여가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잘 하는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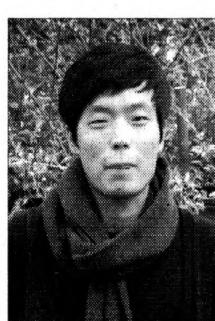
새 총학생회에 바란다

“쾌적한 도서관 만들었으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고쳤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해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들을 잘 이뤄줬으면 좋겠다. 공약을 보고 총학생회를 뽑았는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학생들이 믿고 뽑은 만큼 공약들을 잘 지켜주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봉사 위한 자리임을 명심하길”



총여학생회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의 대표가 아닌 대변인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 했으면 좋겠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열정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 전체 참여 행사 기획을”



제주대 학생들이 다 같이 어울리고 참여하는 행사는 대동제 밖에 없는 것 같다. 단과대학이나 과별로 행사가 있긴 하지만 제주대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않는다. 그런 점에 학생들이 전부 모여 즐길 수 있는 큰 행사가 대동제 말고 또 마련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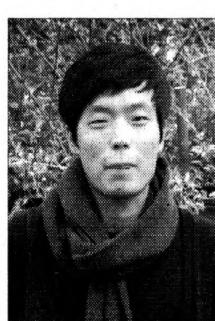
새 총학생회에 바란다

“쾌적한 도서관 만들었으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고쳤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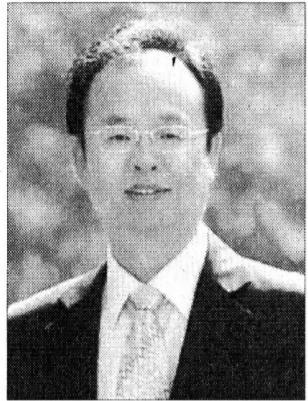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들을 잘 이뤄줬으면 좋겠다. 공약을 보고 총학생회를 뽑았는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학생들이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제주도, '천연물 연구' 최적격

'주름펴고 미백하고'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 연구 진행



이남호 화학과 교수

일하게 된 배경은 효능이 검증된 화장품을 한국식약청이 관리함으로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주어 화장품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화장품에는 기능성화장품이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우수한 효능을 지닌 기능성화장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능성 원료의 확보이다. 화장품산업에서 기능성 원료는 고시원료와 비고시원료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이란 용어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국내 화장품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용 제품', '주름개선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용 제품'에 관하여 한국식약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 정정하고 있다. 한국식약청은 화장품의 인체 안전성, 유효성 및 임상효능을 고려하여 기능성화장품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화장품이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인체에 바르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화장품이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화학적 안정성,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필요하다. 초기 화장품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화장품 내에 물과 기름성분이 분리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애벌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이 첨가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에 의약품이 갖고 있는 유효성분을 도입하여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이 혼합된 개념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 미국의 외과의사인 Kligman 박사에 의하여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을 코스메슈티칼(cosmeceutical)로 명명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말로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코스메슈티칼은 환노화, 아토피개선, 여드름개선, 탈모 방지 등 스킨 케어에 관련된 기능성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 영역을 도



감귤, 유채꽃, 백년초 등 제주자생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레오름'.

기능성원료를 개발하여 회사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연계의 식물체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자외선차단제로 사용하는 원료는 대부분 유기합성 물질이다. 그 이유는 자외선차단용 합성물질이 천연물에 비하여 가격과 효능 면에서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백원료 및 주름개선원료는 천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화장품 산업의 특성 상 비슷한 효능을 갖는 원료라면 합성물질보다 자연에서 얻는 천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백, 주름개선물질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천연물을 바탕으로 한 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천연물(natural product)이란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동식물이 보유하고 있는 2차 대사물을 의미한다. 천연물은 구조적으로 터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일카로이드, 사포닌 성분 등 매우 다양하며, 또한 구조만족이나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유하고 있다.

고시원료와 달리 비고시원료는 각각의 화장품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이다. 화장품회사들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고유의

및 주름개선용 기능성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실험적으로는 우선, 식물체를 채집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여부를 호소활성 실험을 통하여 관찰한다.

활성이 확인된 추출물은 분획 및 분리 정제 과정을 통하여 성분을 분리하고 핵 자기공명분광기(NMR)를 통하여 화학구조를 규명하게 된다. 화학구조가 밝혀진 화합물은 효소실험 및 세포실험을 통하여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유효성을 확인하고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해조류인 간배, 육상식물인 제주조립대, 산딸나무, 조록나무, 종가시나무, 병풀나무 등에서 수많은 물질을 규명하고 미백 혹은 주름개선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1,800여종의 육상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가에는 500여종의 해조류가 분포하고 있는 국내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다.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식물종 때문에 제주도는 천연물 연구를 하기 위한 매우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연물학적 연구를 통하여 제주자생식물을 기능성화장품 혹은 더 나아가서 의약품 원료로 개발하여 제주생물종의 우수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우리의 뜻이다.

한권의 책

이어도, 일반인도 이해 쉽게 구성

고충석 전 총장 등 책 폐내

제주도민에게 이어도는 남다르다. "이역사나 이여도나 우리배는 절도 간다"로 시작되는 이어도민요(작자미상)로부터 유추해 보면, 이어도는 과거 도민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한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어도는 도민들에게 이상향이자 희망의 섬이었다. 과거 제주도민은 현재의 삶이 괴롭고 고달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와 멎고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위안의 언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언어가 이어도였다. 망자의 힘을 달래고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저세상 사람은 모두 이어도라는 곳으로 갔다고 믿어 힘든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처럼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천국이자 극락이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제주도민에게 이어도는 쉽게 포기하거나 잊혀 질 수 없는 바다이다.

이상향의 땅에 제주도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km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섬이 아닌 소코트라(Scotra Rock)라는 암초였다. 이 암초가 발견됨에 따라 이어도는 단순히 섬이나 전설에 나오는 이상향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섬이었을까 증명된 셈이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기대했던 이어도는 왜 섬이 아니고 암초일까? 암초이므로 제주도 남쪽으로 고기잡이를 간 배들은 그 암초에 부딪쳐 난파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 남쪽을 보고 이어도가 있다고 믿는 근거가 되었기에 그 암초는 우리의 이상향인 이어도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어도 암초에는 이어도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 과학기지는 해양과 기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 자료는 기후변화예측 및 다양한 해양 재난을 위하여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은 우리나라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중국, 일본, 한국 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최남단 이어도>

고충석, 박용안, 현병경 저

이처럼 이어도는 우리들에게 인문학, 자연과학,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충석(전 제주대총장) 교수 외 2인이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이어도에 관한 설화, 전설, 정치, 경제, 문화 및 자연과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록 이어도에 관한 실증적인 내용은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어도와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싶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책의 내용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 있다.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제1장 "이어도의 신화와 전설"이라는 문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장에 "이어도, 우리의 미래"로 끝을 맺고 있다. 이어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해양에 관한 상식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부록에서 이어도를 포함하여 해양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였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독도에 관한 많은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마땅한 책자가 아직도 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는 해양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도와 해양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병걸 토목공학과 교수

지역경제 바로알기⑤ 착한장터 그 즐거운 실험

'나눔 장터+착한 소비' 매달 한차례 개최

농가·사회적 기업·자활단체 등이 참여하는 착한 장터

멀리서 혜주(6)와 혜원(10) 자매가 걸어온다. 땅에 냉큼 듯한 가방을 잠시 세워두고 한 바퀴 빙둘러보며 자리를 찾는 모습이 시장 터줏대감의 행세다. 뜻자리를 넓찍하게 펼쳐 가방에서 온갖 물건들을 꺼내둔다. 책, 옷, 연필, 신발, 장난감, 애니메이션 카드까지 자매의 손길이 느껴진다.

"오늘은 가격을 적어 놨어요. 사람들이 떠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는 손님에 따라 기분에 따라 둘씩 날씩 했던 가격은 예쁜 손글씨로 포스트잇에 적혀있다.

"그리고 잘 팔릴 것 같은 물건들은 앞에 놓으려고요. 사람들이 쉽게 보고 살 수 있게요."

어쩌면 이 시장은 이 어린 자매에게 놀이의 차원을 넘어 다른 무언가를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착한장터를 엿보다

매달 둘째주 토요일 노형 근린공원에서는 제주 MBC가 주최하는 착한장터가 열린다. 착한장터는 마트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장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변모하는 소비의 행태를 보여준다. 유통과정이 불분명한 멋거리들이 식탁을 점령하는 이 시대에 착한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며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착한장터의 의미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주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의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순환형 경제와 다른 하나는 장애인·저소득층을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사회적 기업들이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는 형태이다.

착한장터에는 친환경농가, 사회적 기업, 자활단체, 생협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지역농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그날 가져와 판매한다.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자는 본래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된다. 현재 시장은 실제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으로 빠져 나가는 상태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면 이 같은 거품은 사라지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국내산 천연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살림'에서는 쭈, 뜻, 돌마리나 등의 지역상품들을 선보이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인 '수눌음'에서는 청바지나 갈옷

을 리폼한 상품이나 중고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가 곧 소비자이자 생산자



지난 8월 제주 MBC가 주최한 착한장터.

아이와 장터를 찾은 김진경(29)씨는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고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며 연신 웃는 얼굴이었다.

"장터가 아기자기하고 정감이 있어 사람냄새가 느껴진다. 가격총정이 재미도 있고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봐야겠어요."

이렇듯 착한장터는 집근처에 장터를 세우고 상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자리를 펴고 물건을 팔 수 있다. 즉, 모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격에 있어서도 대형유통업체나 중간상인 등에 의해 일정적으로 이뤄지는 가격결정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노형근린 공원에서 매달 열리는 착한장터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도하려 한다. 이 장터에서는 단지 주고받는 거래 행위차원에서 벗어나 제주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형 대형마트 뒷자락 공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마주하는 조그마한 실 힘이 펼쳐지는 셈이다. 착한장터처럼 제주지역에서도 소비의 모습이 바뀌고 이에 따라 생산의 모습이 바뀌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양길(인천정보 4)

무론유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가을이 무르고 있는 이 순간, 답답한 사무실이 아닌 공기가 좋고 환경이 아름다운 제주대학교 내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 무척 고마운 지금입니다. 5년 5개월 동안의 로펌 생활을 청산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온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포근함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정 한번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지만, 지난 10월 2일에 학생들과 함께 올라본 울레길은 제가 여기에 온 이유를 충분히 대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내의 모든 것들, 그리고 제 주도의 전부를 느껴볼 것을 기대하며 간단히 저의 감상을 몇자 적어 봅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와서 처음 놀란 것은 학생들의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로펌에서 근무를 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인기, 정원 배정, 신입생 선발 등에 대한 정보는 꾸준히 듣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놀라움은 타 대학 교수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식견이 좁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교수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즉, 학생들 향명, 학령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다 나은 공부 환경, 나아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애쓰는 따뜻한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9월 초에 있었던 법전원 학생들과 총장님 간의 면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였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과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학교의 분위기는 각박한 로펌 생활에 찌든 저 자신에게 신선한 감격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법조윤리시험을 서울에서 치르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에 나아가 학교측에서는 이에 제주대 법전원 학생들만 제주 대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며, 그러한 조치에 놀란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학생들 사이의 친구같은 분위기,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의 가족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법 전원 중에서 가장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는 제주 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학생들 중 상당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공부 경험이나 사회생활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 소중함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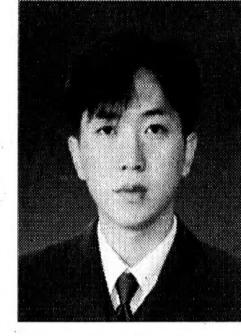
지금까지 두서 없이 저의 감상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만, 혹시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른 과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조급이라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저의 부족한 글 솜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놀라움 그 이상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놀라움이 펼쳐질 그 날을 기대하며, 저의 첫 감상을 마칩니다.

그치지 않고 제주대학교 자체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어떤 다른 기회 보다 절호의 찬스임을 확신하기에 모든 제주대학교 가족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나 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큰 성(城)에 작은 벽돌 하나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은 서로 서로 채워줘 가면서 아름다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게 출발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위대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금도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뒤로한 채 외로운 자기와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모두의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놀라움 그 이상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놀라움이 펼쳐질 그 날을 기대하며, 저의 첫 감상을 마칩니다.



강명수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신임교수 릴레이 인터뷰 - 김일방(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 사회철학교육)

“독서 통한 지적 즐거움 누렸으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칼 마르크스의 말이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혁명가, 경제학자로 불린 그는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남겨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끊었다. 김일방(사회교육) 신임교수 또한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학문을 시작한 학자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철학’을 접한 시기는 대학교 재학 시절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학문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하면서 중 ‘사회철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성립과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미래 사회까지도 연구하는 ‘변화’를 위한 학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문은 철학과 윤리를 접목 시킨 ‘사회’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게 했다.

‘21세기에서 환경과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동기가 됐다.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은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까지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

그는 환경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철학과 윤리를 접목시켜 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하는 이분법적인 ‘전통적 관점’과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 시킨 ‘탈인간주의적 관점’이 있다”며 “나는 인간중심주의지만 이분법적인 관점을 폐쇄시킨 열린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자에게 직접 공수 받아 그의 손에 들어온 책은 슈레터 프레체트의 ‘환경윤리학’이다.

그는 “이 책을 구하고 싶어 여전히 알아보고 노력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어 아쉬웠다”며 “생각한 끝에 미국 텁플대에 재직 중이던 슈레터 교수에게 직접 편지를 썼더니 얼마 후 책을 직접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 후 김 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고 있다. 절반 정도를 끝냈으니 이제 절반 정도가 남은 셈이다. 책을 받을 당시 김 교수는 번역이 모두 끝나면 슈레터 교수에게 이 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완성본이 만들어지면 고마운 마음과 함께 슈레터 교수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교수로 채용된 후 자신의 연구 분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이다.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강단에 선 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최우선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장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나타냈다. 그는 신임교수로서 2가지의 의견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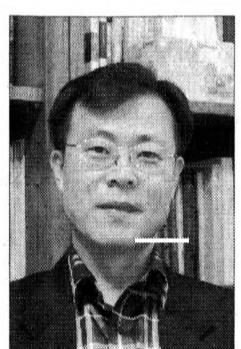
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독서’였다. 학점과 영어공부, 스펙쌓기에만 열중해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몇몇

학생들을 보면 독서의 즐거움도 모른 채 즐업을 하는 것 같다”며 “책을 가까이에 두면서

독서하고, 자신도

모르게 책에 빠져드는 물집의 즐거움을 학생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 분야 역시 빠질 수 없다. 김 교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전공과목인 사회철학과 환경철학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다시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와 학문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 시장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나타냈다.



김일방
사회교육과 전임강사

정승우 기자

정승우 기자

없었다.

공약의 실현성이 전에 이 공약이 가능하지의 여부를 학생들이 질문들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학생은 표만 주는 선거권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있다.

많은 관심들과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손이 빌어도록 뛰고 있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호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흥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설이다.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날까지 학생들의 알권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제주대학교내 가로수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달려 있다. 각자 고유 색깔을 띠면서 개성을 자랑하는데, 학교에 대한 발전을 위한 각오도 그 현수막에 잘 배어 있어서 기분이 좋다. 학교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노력은 지나가는 학생들의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짚음과 폐기물 불사르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꿈꾸는 대학생활의 이상향에 도달고자 하는, 즉 작은 의미로는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들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여파는 1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후보자들은 수천이 아닌 자그마치 일만명의 학생을 위한 공약 마련과 그 실효성을 짜는 데 매진하느라 굉장히 노력과 땀 그리고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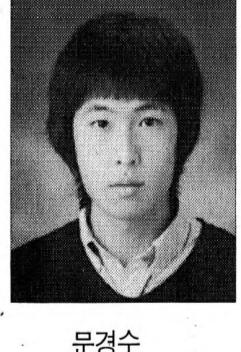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단순히 학생을 위한 공약이 아닌 학교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이번 열리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의 선거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요성과 의의는 사실 나 말고도 일반인들이 아는 사실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흥보,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는 골고루 흥보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학연과 지역을 통한 선거를 지향하고 공약의 실효성을 따지고 선

제주대학교내에 충분히 있었던 흥보를 제시한 공약은 기대하고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호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흥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설이다.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날까지 학생들의 알권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문경수
국어국문 1

‘명품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지금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비전이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오늘도 계속 반짝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장 선거과정에서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미래 비전이기도 한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다. 적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제주대학교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의 언어 표현은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줄여 말하자면 ‘글로벌 명품대학’이다.

쉬운 일이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約束)이다. 신임 총장을 비롯한 대학 지도부가 대학 구성원 모두, 지역사회 전체에 제시한 약속이고, 선거과정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현실적 여건, 전국적, 세계적 범위의 대학정책 환경에 대한 냉엄한 평가 위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명품 구두, 명품 핸드백, 결코 거창한 품목들이 아니다.

‘취업과 발전기금’, 지금 현재 대학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이는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중대한 부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취업과 발전 기금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근원임도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명품’은 결코 편안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교의 노력과 거듭되는 시행착오, 망언 버림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목숨마저 걸 수 있다는 열정, 그런 중에서도 겨우 몇 개가 명품의 반열에 오른다. 명품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방법 논쟁으로 대학의 에너지가 다시 끓어오르기를 기대 한다. 논쟁만이 대학의 에너지를 집결시킬 수 있다.

증명임용시험은 소위 인기과목인 국·영·수를 제외한 탐구영역 과목과 예체능과목의 예비교사 수급인원은 한 자리 수자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16개 시·도 교육청별 2011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정원(영양·특수교사 등 제외)’에 따르면 신규로 선발하는 교사 수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줄어든 2040명이다. 사회교과 교사 정원은 지난해 407명에서 108명만 뺏다(일반사회 25명, 역사 41명, 지리 19명, 도덕·윤리 18명 전국모집인원). 정원이 이렇다 보니 서둘러 비롯해 인천 운송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역시, 공통사회, 일반사회, 도덕·윤리교사 등을 통해 한 명도 뺏지 않는다.

임용정원이 대폭 감소한 배경에 대해 교육당국은 “제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필요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 교과 교사를 너무 많이 뺏다 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사회교과 교사초과라는 교육당국의 말은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를 보면 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중(초중등)은 우리나라가 4.4% (정부부담 3.5%+민간부담 0.9%)이며 OECD평균 3.9% (정부부담 3.6%+민간부담 0.3%)인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초등 29.1 중등 20.4 고등 15.9 명이며, OECD평균 초등 16.9 중등 13.7 고등 12.7에 한참 뒤쳐진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첫째, 재정적으로는 0.5% 초과 지출하고 있으며 둘째, 교원 수는 2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많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nu.ac.kr

독자기고

학생회 선거 정책토론 홍보 신경써야

제주대학교내 가로수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달려 있다. 각자 고유 색깔을 띠면서 개성을 자랑하는데, 학교에 대한 발전을 위한 각오도 그 현수막에 잘 배어 있어서 기분이 좋다. 학교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노력은 지나가는 학생들의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짚음과 폐기물 불사르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꿈꾸는 대학생활의 이상향에 도달고자 하는, 즉 작은 의미로는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들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여파는 1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후보자들은 수천이 아닌 자그마치 일만명의 학생을 위한 공약 마련과 그 실효성을 짜는 데 매진하느라 굉장히 노력과 땀 그리고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단순히 학생을 위한 공약이 아닌 학교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이번 열리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의 선거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요성과 의의는 사실 나 말고도 일반인들이 아는 사실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흥보,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는 골고루 흥보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학연과 지역을 통한 선거를 지향하고 공약의 실효성을 따지고 선

제주대학교내에 충분히 있었던 흥보를 제시한 공약은 기대하고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호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흥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설이다.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날까지 학생들의 알권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첫째, 재정적으로는 0.5% 초과 지출하고 있으며 둘째, 교원 수는 2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많

디지털 유목민의 핸드폰 없이 한달 버티기

세대차이보다 더 무서운 정보격차 느껴… 일상생활도 불편

우리들의 주머니 속에는 상전미마가 살고 있다. 정체는 바로 휴대폰. 사람들은 행여 휴대폰이 떨어져서 상처가 날까 비싼 케이스와 액정보호필름을 준비한다. 또 배터리가 한 칸이 남으면 휴대폰이 배가 고를까봐 불안해한다. 휴대폰을 끊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딸자식을 끌어버린 듯 온종일 패닉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왜 주머니 속에 상전미마를 모시게 된 걸까? 기자는 이 물음을 풀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한달 동안 휴대폰과 이별하기로 했다.

이별 첫 날, 신문사를 나서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빈 주머니를 휘젓거리다 휴대폰이 없음을 확인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다시 신문사로 돌아가 손목 시계를 찾았다. 아날로그 시계가 어색하게 팔목에 걸렸다.

휴대폰이 없는 첫 일주일은 도무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에도 공중전화를 찾아헤매기 일쑤였다. 막상 공중전화 앞에 도착하고 나서도 연락처를 몰라 밤을 등등 구른 적이 많다. 나중에는 연락처를 모두 적어 다니기 힘들어서 착발신이 정지된 휴대폰을 들고 다녔다. 물론 이 휴대폰은 전화번호부로 쓰는 것 말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루는 수업을 받으려 강의실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학생이 4명밖에 없고 교수님은 오지 않았다. 한 10분을 죽치고 앉아 있다가 학생들에게 ‘휴강이 된거냐’고 물어봤다. 다들 모르는 눈치였다.



고용희 기자가 휴대폰을 없애자 그간 바쁘다는 평계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됐다.

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주변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휴대폰 너머로 깨끗하게 들려왔던 친구의 목소리가 뚜렷해지자 친구사이도 더 선명해졌다.

우리는 휴대폰 연결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우수성이다. 절친한 친구인 현윤정(생명화학 공학 2)씨는 연락이 안 되는 내가 많이 답답한지 소리를 질렀다.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틀림 말은 아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머리는 이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빌만에 애처롭게 종력에 불들린다.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면서 심지어 강의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

그러던 중 ‘인간과 철학’ 수업 시간에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윤용택(철학과) 교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서 나 혼자만 ‘똑’ 줄을 끊어버렸다. 그런 나에게 주변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디디 나는 만나자마자 인사말보다 먼저 하는 소리가 ‘휴대폰 언제 개통하나?’다. 친구들은 나에게 휴대폰이 없는 대신 하루 종일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있으라고 했다.

‘정말 휴대폰이 편한 거 맞아?’

막상 휴대폰을 없애고 나니 휴대폰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 마냥 휴대폰이 쳐 놓은 연락망에 걸려들어서 온종일 음직달싹 못한다. 24시간 휴대폰을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고 옆에서 진동 소리라도 들리면 자동으로 손이 주머니로 들어간다.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날이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더 이상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쯤이면 거의 중독 수준이다.

그러던 중 ‘인간과 철학’ 수업 시간에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윤용택(철학과) 교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없이 살았다고 했다.

윤용택 교수님은 “지금 공적 위치에 있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휴대폰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만 연락이 안되면 주변사람에게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산 것이라고 한다.

남들에게 자랑하고픈 휴대폰

나는 사실 스마트폰 사용자였다. 가끔 수업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설립 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하고 인터넷을 몇 시간이고 뒤이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은 생각보다 생활에서 크게 사용되지 않았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라고는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 당시 조금 ‘허세’를 부렸던 것 같다. 휴대폰 없이 한달을 보내고 나니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내 손에 없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TV 광고를 보면 꼭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남들보다 뒤쳐지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다. 물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이 필요해 서 찾는지는 의문이다.

윤용택(철학과) 교수님은 “아이폰처럼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의 기능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혹시 남에게 ‘나 이런 휴대폰 쓰는 사람아’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라”고 말했다.

한달이 끝나고 서둘러 휴대폰을 개통했다. 휴대폰이 없어서 편한 점도 있었지만 여전히 휴대폰의 글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어쩌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의 상전미마로 자리잡게 된 것일까?

우리 스스로 휴대폰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휴대폰을 ‘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희 기자

‘표심 유혹’ 이색 홍보물 등장

단순 홍보 넘어 아이디어로 눈길



학생회관에 다양한 선거 홍보물들이 전시돼 있다.

조용했던 캠퍼스가 들썩인다.

정문을 들어서면 수십 명의 단체 인사를 받는 건 기본, 걷다보면 위, 아래, 양 옆으로 설치된 홍보물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 뿐인가, 달려가는 사람도 붙잡아 한 손에 꼭 쥐어주는 팬플렛 서비스도 있다.

오는 16일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구호와 선전물은 각 선거운동 단에게 꼭 필요한 무기와 같다. 캠퍼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들의 개성 넘치는 홍보활동을 들여다보자.

우리는 ‘똑똑똑’ 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듯한 주먹모양의 노란색 홍보물은 누가 봐도 총학생회 ‘똑똑똑’ 선거운동본부를 떠오르게 한다. 어디에서든 학생들의 노크를 기다리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주먹모양은 홍보물에 대부분 새겨져 있다. 또한 백두관 2층에 보이는 ‘똑’ 소리 나는 한글자의 대형 홍보물은 360도 회전하며 어느 방향에서든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우리 모두 다같이 ‘T.O.P’

정문 길목에는 커피를 따르는 컵 모양의 홍보물들이 총학생회 ‘T.O.P’ 선거운동본부를 떠오르게 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이자 ‘T.O.P’와 같은 이름인 커피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다. 또한 교양강의동에 위치한 기표소 형태의 대형 홍보물은 ‘T.O.P’를 홍보하는 것은 물

론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내고 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여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세요!’

전화기를 받으면 누구나 처음 말하는 말 ‘여보세요’를 이용한 총여학생회 ‘여보세요’ 선거운동본부의 홍보활동이 활발하다. 슬로건과 어울리는 전화기와 입술 모양에 후보자들의 얼굴을 붙인 홍보물들이 학생들의 발길이 닦는 곳 어디서든 위치해 있다. 또한 백두관에 설치한 가마 모양의 홍보물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속에서 두 후보자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누구? ‘우먼센스’!

캠퍼스 내에 박력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 구호를 듣는다면 총여학생회 ‘우먼센스’ 선거운동본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을 잘 이용한 그녀들의 홍보방법이 눈에 띈다. 텔레비전 모형에 후보자들의 사진을 넣는가 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행어와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현수막도 캠퍼스 곳곳에서 돋보인다. 무심코 읽는 학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준 그들이 홍보법은 학생들에게 ‘우먼센스’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6일 이뤄진다. 선거유세가 뜨거웠던 만큼 일관 아라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진정한 리더들에게 던져주길 기대해 본다.

박현 기자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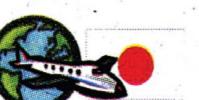


상해/황산 5일

상해/항주/소주 4일

상해/장가계 5일

일본



동경/후지산 4일

후쿠오카 4일

오사카/나라/쿄토 4일

북해도 4일

대만

4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필리핀

5일

마닐라

5일

인도

8일

인도/겐지스

5일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5일

홍콩

4일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5일

캄보디아

5일

양코르왓

5일

방콕/파타야

5일

시드니

6일

미주

8일

유럽

8일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4693-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